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시놉시스

광고회사에 다니는 영성은 반듯한 외모와 능력을 지닌 남자이다.

특급호텔 EFL에서 일하는 민영, 그녀는 2년째 영성과 교제중이다.

민영은 요즘 들어 영성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둘만의 데이트 횟수도 부쩍 줄었고, 만나도 헤어지기가 바쁘다.

그리고 특히나 밤에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영성이 은영이라는 여자를 만난다. 일을 마치고 난 후, 민영과의 짧은 만남 후, 매일 밤 만난다. 그녀에게 사랑을 말하고, 민영에겐 보여주지 않은 해맑은 미소를 보낸다.

혼기가 찬 민영을 그녀의 어머니가 뒤통수친다.

“결혼할 남자 있으면 어서 이 애미한테 보여줘”

점심시간, 민영의 어머니가 민영에게 어서 남자친구 데려 오라며 영성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는다. 어쩔 수 없이 영성을 부르는 민영 영문도 모른 채 레스토랑에 온 영성, 그 자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이 존재하는 지금 이런 자리는 자신에게도, 그녀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영성이 민영에게 화를 내며 말한다. “나 다른 여자 있어”

집으로 돌아온 민영,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한다. 그래서 이놈이 내 전화를 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놈의 그동안 나를 피했구나.

하지만 이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질투도 나고, 궁금증도 생긴다. 그녀가 누구인지, 얼마나 잘난 여인인지...

심기가 불편한 민영에게 그의 직장동료인 지은이 귀찮게 한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민영에게 남편의 미행에 동행을 요구한다. 착한 민영은 복잡한 자신의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한편 영성은 은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 사이 몰래 그의 뒷조사를 하는 민영, 그의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하고, 그의 집 앞에서 몰래 그의 집을 훑쳐보기도 한다.

주말, 영성은 은영과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영성의 집 앞에 온 민영, 그녀의 핸드폰 위치추적엔 영성은 계속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며칠째 영성은 집 안에만 있었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한 그였다.

민영은 영성의 집으로 몰래 들어간다. 안대를 낀 채 잠을 자고 있는 영성
꿈속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던 영성
민영은 자신이 질투한 여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여인이라는 사실에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운 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한 영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이다.

장르 : 미스터리 멜로

주제 : 누구나 꿈을 꾀다.

작의

꿈이라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로 잠을 잘 때 나타나는 그것, 둘째로 소망하는 무언가를 뜻하는 그것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간절히 두 번째의 그것을 바랄 때, 첫 번째의 그것에
두 번째의 그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그것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해도 될 듯하다.

난 다른 이들에 비해 꿈을 많이 꾸는 편이다.

비교적 좋지 못한 환경에 존재해 있던 난 꿈속에서 나의 소망을 이루곤 했다.

나 외에 다른 이도 그러리라. 결코 나뿐이 아니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꾀다.

꿈속에서 못 다한 바람을 이루고, 깨고 난 후에는 허탈한 미소를 짓는다.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꿈이 너무 달콤해, 현실보다 낫기에..

반복되는 그 몽환하고도 매력적인 희로애락의 세계에 빠져 현실과 혼동해 버릴
지도 모른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얼마나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기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반전을 좋아한다. 반전을 인정하고, 중요시한다.

나름 반전을 위해, 반전을 중요시하며 구상한 글이다.

초반의 지루함 또한 반전을 위한 것이니 부디 참고 끝까지 봐 주시길.

등장인물

영성(30세) 광고회사 대리, 흰칠하고 깔끔한 외모

매너 좋고 반듯한 성품을 지닌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더블 데이트
를 하는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

민영(26세) 특급호텔 EFL(외국손님 전용 사무행정 로비) 직원

영성의 여자 친구로 청순한 외모에 착하고 친절하다.

영성의 변심을 느끼고 그의 뒤를 조사한다.

은영(28세) 영성과 바람피우는 상대자, 말 수가 적고 내성적이다.
은근히 남자를 많이 홀릴 것 같은 묘한 매력과 미모의 소유자

지은(28세) 민영의 직장 동료, 호들갑 떠는 스타일
남편의 불륜현장을 민영과 함께 감시한다.

프롤로그

어두운 밤하늘, 별이라도 내리듯 거세게 소나기가 퍼붓고 있다.
유홍주점이 밀집한 왕복 2차선 도로, 영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 한 복판에 서 있다.
비틀거리며 도로를 건너는데 지나가는 차가 영성의 앞에 멈춰 서고는 신경질적으로 클락션을 울린다.

운전자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대로 비틀대며 걸어가는 영성, 욕을 해대며 차를 몰아가는 운전자
휘청거리다 흙탕물에 쓰러진다. 한손으로 바닥을 짚고는 몸을 일으킨다.
인도로 올라온 영성, 다시 중심을 잡고 걷다가 벽에 오른손을 짚고는 몸을 의지한다.
고개를 숙이고 구토를 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영성의 토악질
토악질은 끝이 났지만 그대로 몸을 멈춘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그의 머리와 등으로 거세게 떨어지는 빗방울, 이미 옷은 전부 젖어있다.
자세히 보면 그의 어깨가 가볍게 들쭉이는 것이 보인다.
아래로 힘없이 떨어져 있는 그의 오른손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린다.
그의 얼굴을 보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리는 눈물
서럽게 울먹이며 분통한 듯 이미 상처가 난 주먹으로 벽을 힘차게 내려친다.

영성 으악~!!

또 다시 서럽게 울먹이는 영성

영성 (울부짖듯) 왜? 왜? 왜!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영성
먼발치, 우산을 쓰고 이를 지켜보는 은영, 안타까운 듯 안절부절 못한다.
망설이다 영성을 향해 뛰어간다.
영성의 내리치는 주먹을 뒤에서 잡는다. 행동을 멈추는 영성

은영 (울먹이며) 왜 이래? 왜 이래 영성 씨.
영성 니가 나 싫어진 거면 헤어져, 내가 너 싫어졌어도 헤어져.
 그런데... 그게 아닌데 우리가 왜 헤어져?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헤어져?
은영 미안해, 미안해 영성 씨

뒤에서 영성을 끌어안는 은영
영성이 뒤돌아 은영을 끌어안는다.
서로 끌어안고 평평 우는 두 사람, 그 위로 거세게 떨어지는 빗방울

타이틀 - in dreams-

s#1. 영성의 방(아침)

화면 밝아오며, 프롤로그와는 정반대의 느낌이 드는 화면 톤이다.
아침 햇살이 빨려드는 창문, 밝고 깨끗한 느낌으로 약간 뿌옇고 새하얗다.
깔끔히 정돈된 깨끗한 영성의 방이다.
햇살이 방안을 환하게 비춘다.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영성
눈엔 검은 안대를 끼고 있다.
밝은 햇살이 영성의 얼굴에 내비친다.
기분 좋은 듯 미소를 머금은 영성의 얼굴
슬며시 손을 들어 안대를 벗는다.
누운 채로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 방안을 둘러본다.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는다.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한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붕대로 감아 놓은 영성의 오른손
가만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던 영성,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문을 열고 나간다.

s#2. 영성의 집, 욕실(아침)

거울에 비친 영성의 얼굴
영성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안심이라도 한 듯 약하고 길게 숨을 내쉰다.
정신을 차리며 앞에 놓인 칫솔을 집어 들고는 양치를 시작한다.

다친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둔 채 왼손으로 어색하게 양치를 한다.

[점프]

세면대 앞, 허리를 숙여 세수를 하는 영성

왼손 한손으로만 힘들게 세수를 한다. 오른손은 여전히 아래로 내린 채로

s#3. 영성의 방(아침)

거울에 비친 영성의 모습

넥타이를 매고 있다. 깔끔하고 반듯한 인텔리적인 모습이다.

자신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듯 거울을 향해 멍쩍게 웃어 보인다.

s#4. 영성의 집 앞(아침)

신축 오피스텔, 1층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영성, 깔끔한 슈트에 서류가방을 들고 있다.

문을 잠그고는 뒤돌아 걸어간다.

앞에 주차된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오른다.

[cut to]

차 안, 왼손으로 힘들게 키를 꽂아 돌린다.

힘들게 시동이 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잠시 바라보는 영성

차를 출발 시킨다.

붕대에 감겨 콘솔박스 위에 가만히 올려 진 영성의 오른손(c.u)

s#5. 회의실(아침)

영성의 회사 회의실

회의 시작 전이다.

미리 모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 몇 사람이 뒤돌아 영성을 바라보고는 목례한다. 그 사이 있던 영성의 동료, 자리에서 일어나 영성에게 다가간다.

영성 아침부터 무슨 일이라?

동료 몰라, 엇그제 그 클라이언트가 태클 거나봐.

영성 뭐? 왜 또?

동료 (인상 쓰며 고개를 젓는다.)

(영성의 손을 발견한다.) 야, 너 손 왜 이래?
 영성 (뒤로 감추며) 별거 아냐.
 동료 (호들갑떨며 영성의 손을 낚아챈다.) 별거 아니긴? 너 싸웠냐?
 너 요즘 왜 이래?

s#6. EFL(아침)

특급 호텔 외국인 전용 사무용 로비
 빨간 카펫이 깔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로비이다.
 입구로 들어오면 큼지막한 책상이 놓여있다. 그 안에 앉아있는 민영
 호텔 유니폼(여승무원들의 옷차림새와 비슷한 약간 화려한 붉은 색) 차림이다.
 이때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서양인 남녀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그들을 반긴다.
 목례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서양 남녀
 그 뒤로 들어오는 다급한 표정의 일본 아줌마, 민영에게 일본어로 무언 같 얘기
 한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민영
 책상 밖으로 나와 아줌마의 등에 손을 살포시 얹고는 그녀를 이끌고 안으로 걸
 어간다. 유창한 일본어로 아줌마에게 무언 가를 설명한다.
 오~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본 아줌마
 컴퓨터 앞에 그녀를 앉히고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무언 가를 설명한다.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일본 아줌마
 민영, 미소로 화답하고 뒤돌아 걸어간다.
 모퉁이 길게 놓인 테이블, 위에 각국의 신문들을 정리한다.

s#7. 호텔 직원식당(오후)

민영의 호텔 직원 식당, 점심시간이다.
 각 부서별 다양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식사 모습이 보인다.
 벨맨들의 무리, 커피숍 무리, 프런트 무리,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 다
 른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다. 그들을 훑는 카메라
 그 사이 민영과 지은이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민영 오늘은 왜 늦었어?
 지은 (한숨) 나 이러다 진짜 잘리는 거 아냐?
 민영 (미소)
 지은 그 인간... (한숨) 다 그 인간 때문이야.
 민영 언니는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 인간이야?

지은 말도 마라, 어제다 싸우다 보니까 새벽이더라.
내가 결혼을 왜 한 건지... 휴우~

민영 싸울 일이 그렇게 많아? 언니도 참... 어젠 왜 또?

지은 이 인간...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거 같아.
(술가락을 어금니로 깨어 문다.)

민영 에이 설마, 언니 그런 의심 함부로 하는 거 아냐.

지은 뭐? 애가, 애가, 너 도대체 누구 편이니?

민영 (깁쟁이처럼) 난 중립

지은 뭐? 너도 조심해. 남자는 믿을 게 못돼.
내가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너 도대체 남자친구는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민영 (당황) 응? 조만간 해줄게.

지은 (혀 차며) 쭈쭈쭈, 내가 보기엔 너희도 정상은 아냐. 무슨 문제 있지?

민영 문제는... 아냐 그런 거. 그 사람이 요즘 좀 바빠.

민영의 말을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민영의 얼굴을 보는 지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어색하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민영

s#8. 호텔 앞(저녁)

사복 차림의 민영과 지은이 서로 팔짱을 낀 채로 호텔 밖으로 걸어 나온다.
앞에 서 있는 도어맨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답례하는 도어맨

지은 정말이야, 난 딱 보면 알아. 니 형부 바람피운 거 벌써 몇 년째냐?
이제 완전 도사라니까, 이놈은 필 놈, 이놈은 안 필 놈.
퍼센트까지 낼 수 있다니깐. 언제 보여줄래?

민영 언니 어디 가? 집으로 바로 가는 거야?

지은 기집애, 말 돌리기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냐?
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민영 (웃음) 폼...

지은 너도 내 나이, 내 상황 돼봐라. 집구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너도 전철 탈거지? 같이 가면 되겠네.

민영 아니, 난 오늘 약속... 오늘은 언니 먼저 가라.

지은 약속? 누구랑?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민영, 먼발치 한 곳을 응시한다.
민영의 시선을 따라보는 지은

영성의 차가 둘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민영 언니, 나 먼저 갈게.

지은 뭐? 왜? 어딜?

영성의 차가 둘의 앞에 멈춰 선다.

대답 없이 지은에게 손을 흔들며 차에 올라타는 민영

지은이 선풍된 차 안을 유심히 바라본다.

출발하는 차, 그 뒤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지은

s#9. 차 안(저녁)

차 안, 백밀러로 지은의 모습을 바라보는 영성

차 뒤편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지은의 모습이 백밀러로 보인다.

영성 누구야?

민영 같이 일하는 언니.

영성 같은 방향이면 태워줄걸 그랬다.

민영 (고개를 저으며) 아니, 오빠 오늘 빨리 가야 한다면?

저 언니 태워주면 일찍 가기 힘들걸?

안 그래도 오빠 소개해 달라고 난린데...

영성 (썩썩한 미소) 그래?

영성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가만히 영성을 바라보는 민영

민영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표정으로 계속 운전만하는 영성

민영,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데 이때 시선에 들어오는 영성의 오른손
놀라며 영성의 손을 집어 든다.

민영 오빠, 손 왜 이래?

영성 (아프다.) 아, 아, 아...

민영 왜 이래? 언제 이랬어?

영성 (민영의 손에서 손을 빼내며) 별거 아냐?

민영 별거 아니긴, 어디 좀 봐. 오빠 싸웠어?

영성 별거 아니래두.

차갑게 민영의 손을 뿌리치는 영성

차가운 반응에 마음 상한 민영, 풀이 죽어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다.

영성(e) 뭐 먹을래? 빨리 되는 걸로 먹자.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민영

s#10. 설렁탕집(저녁)

우걱우걱 밥을 먹는 영성

아직 기분 상한 듯 건성으로 국을 떠먹는 민영

슬쩍 눈을 치켜들어 영성의 봉대감긴 오른손을 바라본다.

민영을 바라보는 영성, 재빨리 시선을 깔고는 밥 먹는 시늉을 하는 민영

영성 빨리 먹어. 왜 별로야?

민영 (건성으로) 응? 아니... 그냥, 나 원래 설렁탕 안...

영성 (말 자르며) 어서 먹어, 나 빨리 가야 한다니까.

다시 빠른 속도로 밥 먹기 시작하는 영성

서운한 듯 영성을 흘겨보는 민영

s#11. 민영의 집 앞(늦은 저녁)

민영의 아파트 앞, 영성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선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민영이 차에서 내린다.

풀이 죽어 힘없이 차 안을 바라보는 민영, 창문이 내려진다.

안쪽에 영성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민영을 바라본다.

영성 그럼 어서 들어가 쉬어.

민영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영성 내일 전화할게.

민영 내일? 오늘 밤엔 안 할 거야?

민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문을 올리고는 차를 출발하는 영성
가만히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영, 힘없이 뒤돌아 집을 향해 걷는다.

[cut to]

차 안, 오른손으로 핸들을 대충 지지하고는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거는 영성, 좀 전의 표정과 다르게 사뭇 진진한 표정이다.

영성(통화) 어, 나야, 지금 끝났어. (사이) 어디? 알았어.

전화를 끊고는 다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는 영성
굳은 표정으로 운전엔 열중한다.
속도 계기판에 게이지가 빠르게 올라간다.
붕~ 소리를 내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s#12. 한강공원 벤치(늦은 저녁)

밤이 되기 전 어두운 저녁, 강과 검은 구름이 묘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 경치 중간에 놓인 벤치, 벤치에 앉아있는 긴 생머리 여인의 뒷모습
여인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남자의 구둣발 소리
여인의 등 뒤에서 멈춘다. 미동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여인
조용한 강의 모습이 보이며 둘의 대화가 들린다.

영성(e) 어디 들어가 있지.

여인(e) 나 혼자 어디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

영성(e) 어서 가자.

여인의 어깨에 봉대감은 손이 올려 진다.
살짝 고개를 돌리는 여인, 바로 은영이다.
-암전-

s#13. 민영의 방(밤)

스위치 켜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며 밝아진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안으로 들어오는 민영
밖에서 들려오는 민영 모친의 목소리

모친(e) 밥은 먹고 들어왔니?

민영 응~.

밖을 향해 크게 대답하는 민영, 계속해서 머리를 닦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걸어가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 든다.
폴더를 열어 액정을 바라본다. 아무 것도 없는 액정
민영, 핸드폰을 들고는 잠시 생각에 빠진다.

1번을 길게 누르고는 핸드폰을 귀에 가져간다.

(f)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핸드폰을 닫고는 힘 빠진 듯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쉰다.
이때 또 다시 들리는 어머니의 음성

엄마(e) 나와서 과일이라도 좀 먹어.
민영 알았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밖으로 걸어 나가는 민영

s#14. 레스토랑(밤)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
마주앉아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은영과 영성
은영의 자근자근 고기를 씹어 먹는 모습이 기품 있고 예뻐 보인다.
은영의 미모에 빠진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영성
영성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어 영성을 바라보는 은영

은영 영성 씨는 왜 안 먹어? 뭐 먹었어?
영성 응? (정신 차리며) 아니

먹으려는데 손 때문에 칼질이 힘들다.

은영 아, 내 정신 좀 봐. 이리 줘, 내가 잘라 줄게.
 (영성의 접시를 가져온다.)
영성 (호뭇한 미소) 괜찮은데...
은영 (고개를 자르며) 바보같이, 또 그랬담 봐.
 내가 이걸 이빠서 잘라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놈 고기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주는 거야.

포크로 고기를 집어 영성의 입으로 가져가는 은영
영성, 호뭇하게 은영을 바라보다 고기를 받아먹고는 밝게 미소 짓는다.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사랑이 눈 속에 가득하다.

s#15. 호텔 사무실(낮)

호텔 콜센터 사무실

3평 정도의 크기에 작은 책상 두 개가 전부이고 벽에 걸린 시계가 인테리어의 전부이다.

‘징징징’ 소리를 내며 책상 위 팩스에서 종이가 빠져 나온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 컴퓨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세상의 시련과 아픔을 많이 받은 듯 무겁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다.

(약간 무서운 듯한 느낌도 드는 외모)

머리엔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통화 정보를 보기 위해 설치된 컴퓨터이다.

앞에 놓인 버저(buzzer)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

여직원(통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로얄호텔입니다.

목소리(f) 여기 월튼데요. 금방 팩스 보냈거든요. 이에프엘 물품 목록입니다.

여직원(통화) 네, 알겠습니다.

팩스를 바라보는 여직원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한다.

s#16. EFL(낮)

책상에 앉아있는 민영, 평소의 생동감은 없고 기운이 빠져 있다.

전화가 울리자 받는다.

민영(통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에프엘 이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민영, 다시 어깨를 늘어뜨린다.

지은(e) 어이~ 차 좋던데?

앞을 바라보는 민영, 싱글싱글 웃으며 민영의 앞에 서 있는 지은

지은 돈 좀 있나보지? 그래서 소개 안 시켰냐? 내가 뺏겨 먹을까봐?

고개를 숙이며 깊게 한숨 쉬는 민영

지은 왜? (게슴츠레하게 민영을 바라본다.) 뭐야? 무슨 문제야?
바람이야? 그럼 그렇지, 내가 얼굴은 아직 못 봤지만
원래 돈 있는 놈들은 얼굴이랑 상관없이 바람을 곧 잘 피지.
그게 순리거든.
민영 (노려본다.)
지은 어딜 노려봐. 이 쪼그만 것이 (민영의 머리를 쥐어박는다.)
따라와. 언니랑 상담 좀 해야겠다.

민영을 자리에서 일으켜 팔을 잡고 끌고 나가는 지은
귀찮은 듯 끌려 나가는 민영

s#17. 호텔 비상구 계단(낮)

고층에서 본 서울의 경치

지은(e) 단서는 있고?

직원용 비상계단에서 지은과 민영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다.

민영 그런 거 아니래두.
지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구나.
민영 (못마땅한 듯 노려본다.)
지은 내가 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은 오겠지
민영 오늘?
지은 모른 체하긴, 새침때기 같으니, 언니가 예약 끝냈다.
민영 알고 있었어? 이번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지은 나도 그냥 넘어 가고 싶었는데
(흥내) ‘언니 정말 너무해요~’ 작년처럼 너 또 울고불고 난리 칠까
봐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래도 여자 친구 생일인데 오늘은 등장을 해주시겠지?
민영 ...
지은 (다르치 듯) 응?
민영 (마지못해 고개 끄덕인다.)

s#18. 복도(낮)

EFL앞 복도, 민영과 지은이 이야기를 하며 EFL을 향해 걸어간다.

지은 생일인데 비싼 선물도 사달라고 하고 그래, 깡쟁이처럼
민영 나 그런 거 못해.
지은 못하긴 내숭덩어리, 내가 대신 해주리?
 핸드폰 줘봐. 내가 할 테니.

민영의 몸을 뒤지며 간지럼을 태우는 지은, 깔깔 거리며 몸부림치는 민영
서로 즐거운 듯 장난치며 걸어가는데, EFL 앞에 콜킴 여직원이 그들을 바라보
고 서 있다.

무표정이지만 강하고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그녀를 발견한 민영이 장난을 멈추고 목례한다.

그제야 지은도 그녀를 발견한다.

그녀에게 걸어가는 민영

말없이 민영에게 팩스 용지를 내미는 여직원

그대로 몸을 돌려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는데,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그녀

절뚝절뚝, 휘청휘청 불안하게 걸어간다.

종이를 들고 가만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영,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발
견하고는 정신을 차리며 그녀의 뒤를 향해 외친다.

민영 감사합니다.

대답 없이 그대로 걸어가는 여직원

지은이 민영에게로 걸어온다.

지은 재 좀 이상하지 않냐?
 저 다리 보다 정신에 더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왜 그런 거 있잖아. 자격지심 같은 걸로 똥똥 똥친, 정신병자.
민영 췌! 듣겠다.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는다.)

내가 뭘? 이란 듯 고개를 치켜드는 지은

절뚝이며 걸어가는 여직원의 무거운 표정 뒤로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약하게 들
려온다.

s#19. 생맥주 전문점(저녁)

화면 가득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 약간 부끄러운 듯 보이는 민영의 얼굴

화면 넓어지면 호텔 직원들로 가득한 생맥주 전문점 단체 테이블
상석에 민영이 앉아있고, 그 옆에 지은이 앉아있다.
8권의 도어맨의 얼굴도 보이고, 7권에 나온 여러 부서별 직원들의 모습 보인다.
폭죽 등을 들고 민영이 앞에 놓인 케익의 촛불을 끄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후~ 불어서 촛불을 끄는 민영, 직원들 환호하며 폭죽을 터뜨린다.
민영, 고개를 숙이며 연신 고맙다 인사를 한다.

민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어맨 (선물을 내밀며) 생일 축하해요.
 이거 우리 도어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민영 (받으며) 감사합니다.
도어맨 민영 씨는 애인 없어요?
민영 네?
도어맨 아니 이런 날 옆에 아무도 없는 거 보면 혹시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
 까 해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지은 (차갑게) 애 애인 있어요. (혼잣말) 넘볼 걸 넘봐야지...
민영 (말리듯 작게) 언니
지은 왜?

불안한 듯 핸드폰을 꺼내어 보는 민영, 작게 한숨 쉰다.

영성(e) 내가 좀 늦었나?

표정 밝아지며 얼른 고개를 치켜드는 민영
민영에게로 걸어오는 영성의 모습

영성 미안, 일이 좀 늦어져서...

민영에게 꽃과 선물을 내민다.
주위에서 와~ 하는 감탄이 흘러나온다.
지은, 영성의 외모에 반한 듯 시선을 떼지 못한다.
감격한 듯 활짝 웃으며 꽃과 선물을 받는 민영

영성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 (벌떡 일어나 손을 내밀며)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영이랑 같은
 부서에 일하고 제일 친한 지은이라고 해요. 호호호
영성 (악수하며)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은 그래요? 호호호, 어서 앉으세요.
영성 네.

자리에 앉는 영성, 자랑스러운 듯 흐뭇하게 영성을 바라보는 민영

s#20. 생맥주 전문점 앞(밤)

영성과 민영이 서 있다. 여전히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 민영
그 앞에 영성의 차가 주차 되어 있다.

민영 (아쉬운 듯) 좀 더 있다 가지
영성 미안
민영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일이 그렇게 많아?
영성 미안,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민영 언니들이 오빠 보고 싶다고 예전부터 졸랐는데...
영성 봤잖아, 인사도 했고, 나중에 또 보면 되지
민영 남자 직원들은 나 남자 친구 없는 줄 알고 나 넘보는 사람도 많은데..
영성 너 안 그러기로 해놓고, 또 이런다.
민영 아쉬워서 그러지, 또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영성 (민영을 안으며) 일이잖아. 일 안하고 너 옆에만 있을까?
민영 (안긴 채) 알았어.

민영의 얼굴을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뒤돌아 자신의 차로 향한다.
그의 뒷모습을 아쉬운 듯 바라보는 민영
차에 오른 영성이 환하게 웃으며 민영에게 손을 흔든다.
손을 흔들며 떠나는 차를 바라보는 민영, 아쉬운 듯 뒤돌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인서트]

호프 안, 안으로 들어오는 민영에게 남자친구 잘생겼다며 칭찬하는 직원들
민영, 부끄러운 듯 미소 짓지만 한편으론 먼저 가버린 영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s#21. 동대문 쇼핑몰 안(밤)

많은 인파들이 붐비는 쇼핑몰 안
여러 커플들의 모습이 보인다.

에스컬레이터, 사람들 사이에 영성과 은영이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다.

[점프]

환하게 웃으며 옷 구경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

s#22. 민영의 집(밤)

현관, 문이 열리고 민영이 안으로 들어온다.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다가오는 민영의 모친

모친	파티는 잘 했니?
민영	응.
모친	회사 사람들하고?
민영	응.
모친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왔어?
민영	누구?
모친	너 만난다는 남자
민영	응, 잠깐
모친	잠깐은 또 뭐야?
민영	요즘 일 때문에 좀 바빠.
모친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도 좀 보자.
민영	엄마가 왜?
모친	왜는? 엄마가 봐야지, 사위 될 사람인데.
	너도 이제 나이가 몇이냐?
민영	천천히 보면 되지, 어디 가는 사람도 아니고
모친	내일 보자,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 지가 언제야?
민영	안 돼, 엄마, 나중에 데리고 올게.
모친	시끄러, 내일 엄마가 찾아 간다.
민영	뭐?

확고한 모친의 표정, 그대로 뒤 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당황한 민영이 모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본다.

s#23. 영성의 회사, 사무실(오후)

책상에 앉아 집무를 보고 있는 영성, 울리는 핸드폰을 받는다.

영성 (통화) 여보세요. (사이) 응, (사이)
 갑자기 왜? (사이) 무슨 일인데? (사이) 갑자기니까 그러지
 (체념한 듯 한숨) 알았어, 어디?

전화를 끊고는 손목시계를 본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s#24. 일식당(오후)

룸으로 된 일식당
민영과 민영의 모친이 나란히 앉아있다.
민영은 약간 안달이 나있고 불안함도 느껴진다.

민영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모친 갑작기는 무슨, 어제 얘기 했잖아.
민영 아이 참, 안 된다고 말했잖아. 약속도 없이 이렇게 오는 거 실례야.
모친 엄마가 사위 될 사람 본다는데 그 놈이 무슨 유명 인사라도 돼?
민영 하여튼 우리 엄말 누가 말려? 나도 몰라 이제

이때, 스프룩 미닫이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영성

민영 (당황하며) 오... 오빠.
영성 어.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 옷매무새를 고치는 모친
약간 귀찮은 듯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이 생각지도 못한 모친을 발견하고는 놀
란다. 표정이 굳어지며 원망하듯 민영을 노려본다.
죄지은 사람마냥 고개를 푹 숙이는 민영

[점프]

굳은 표정으로 밥을 먹는 영성

모친(e) 그럼 부모님들은 다 살아 계시고?
영성 (고개 숙인 채 건성으로) 네.
모친(e) 고향에 계신가?
영성 (건성으로) 네.
모친(e) 일은 안정적인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민영
눈을 흘기며 모친을 바라본다.

영성(e)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당황하며 앞을 보는 민영
영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민영 엄마, 왜 그래 진짜. 여기가 뭐 선보는 자리야?

자리에서 일어나 영성을 따라 나가는 민영

s#25. 건물 옥상(오후)

시내가 환하게 보이는 높은 빌딩의 옥상
화가 많이 난 영성이 먼 곳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뒤에서 안절부절 하며 서 있는 민영
영성에게 미안한 민영, 하지만 자신도 영성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

민영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와 버리는 사람이 어딴어?

영성 ...

민영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오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야?

영성 미리 말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그럼 나가지 않았을 거고
그럼 이런 실례도 하지 않았을 거고

민영 뭐? 오빠 말이 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그리고 우리 엄만데...

영성 너희 어머니라서 안 만나겠다는 거야.

민영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빠 날 여자 친구로 생각이나 하는 거야?

요즘 점점 이상해져, 알어? 잘 만나주지도 않고,

잠깐 만나면, 헤어지고 나서 전화도 안 받고

내 생일인데, 내가 그렇게 조금만 더 있자고 해도...

회사 사람들 다 있는데, 먼저 가버리고,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성 (말 자르며) 민영아, 나... 여자 있다.

말문이 막히는 민영의 굳은 표정
비교적 차분한 영성의 얼굴,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암전-

s#26. EFL(오후)

밝아지며 책상에 앉아있는 민영, 조금 전 영성의 말을 생각하고 있다.
불쾌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한다. 부정하듯 고개를 젓는다.

영성목소리 나, 여자 있다.

민영, 두 눈을 감고 머리를 헝클인다.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들려오는 영성의 목소리 “나 여자 있다.”
말을 지우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민영
이때, 들리는 테이블 두드리는 소리, 민영이 앞을 본다.
앞을 보면, 활짝 웃으며 민영을 바라보는 일본인 투숙객

투숙객 (일어로) 메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민영 (일어로)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님을 반기는 민영, 이내 얼굴에 미소 또한 가득하다.
손님을 이끌고 컴퓨터로 걸어가 친절히 설명하는 민영

s#27. 호텔 직원식당(오후)

민영과 지은이 마주앉아 밥을 먹고 있다.
고개 숙여 밥만 먹고 있는 민영, 지은도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지은 민영아, 너 오늘 마치고 뭐하니?
민영 (바라본다.) ...
지은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 채) 오늘 나랑 함께 가주지 않을래?
민영 언니,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 거든.
지은 부탁할게. 나 혼자선 힘들 것 같아 그러거든.
민영 언니, 나 정말 오늘은...
지은 (말 자르며) 우리 남편 여자 생긴 거 같다.

놀람에 말문이 막히는 민영 지은을 바라본다.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밥을 먹는 지은
민영, 길게 한숨을 내쉰다.

s#28. 차 안(저녁)

빌딩 근처에 세워둔 민영의 소형차 안
조수석에 앉은 지은이 빌딩을 주시하고 있다.

지은 사실 그 동안 쪽 심증은 있었어, 하지만 아니라며 애써 내 자신을 달
 랐었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증을 잡아야 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민영, 지은을 보며 짧게 한숨 쉬고는 빌딩을 바라본다.

차에서 본 빌딩 앞의 광경
퇴근시간, 퇴근하는 양복 차림의 사원들, 그 사이 지은 남편의 모습 보인다.

차 안,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는 두 사람

지은 어... 저기 나온다.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는 지은

남편, 도로로 걸어가 급하게 지나가는 택시를 세운다.

지은 민영아, 출발하자.

시동을 거는 민영

s#29. 극장 안

어두운 극장 안, 스크린에서 코믹영화가 상영 중이다.
하하 호호, 즐겁게 웃고 즐기는 관객들
그 사이, 구슬프게 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
의아한 듯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뒤돌아보는 관객들
중간 자리쯤, 앉아 있던 지은의 남편도 뒤를 돌아본다.

맨 뒷자리, 울고 있는 지은을 달래고 있는 민영
따지듯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난감한 표정이다.

민영 (작은 목소리) 언니, 그만 좀 해.
지은 (코를 훌쩍이며) 훌쩍 훌쩍... 결혼하고 한 번도 극장에 데려와 본 적
없었어. 그런데... 그런데... 저 년이랑 저렇게 사이좋게... 으앙~

또 다시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지은
민영이 지은의 입을 틀어막으며 또 다시 주위를 향해 머리를 조아린다.
지은의 남편이 뒤돌아 고개를 가웃하다가 다시 고개를 바로 돌리고는 옆에 앉
은 내연녀에게 팝콘을 먹여 주며 즐거워한다.

지은(e) 으앙~~

s#30. 자동차 극장, 차 안(밤)

멜로 영화가 상영 중인 자동차 극장의 스크린 화면

영성의 차 안, 영성과 은영이 영화를 보고 있다.

은영 어때?
영성 뭐가?
은영 이런 영화, 안 좋아 하잖아.
영성 (미소) 괜찮은데, 같이 보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은영 (미소)...

서로 마주보고 미소 짓는 두 사람

영성 뭐 좀 마실래?

어린이처럼 고개 끄덕이는 은영, 영성이 환하게 웃어보이고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다시 영화에 집중하는 은영

스크린의 두 배우가 진한 키스를 나눈다.

s#31. 민영의 방(밤)

잠옷차림의 민영이 침대에 걸터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다.

핸드폰 액정화면 속엔 기본 화면 뿐

영성의 전화를 기다리는 듯 민영, 핸드폰을 향해 주문이라도 걸 듯 계속해서 응시하지만 반응이 없다.

큰 다짐이라도 한듯 크게 숨을 내뿔으며 핸드폰의 1번을 길게 누른다.

(f)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실망한 민영, 핸드폰을 힘없이 닫는다.

이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소리

(e) 똑똑똑

모친(e) 민영아, 자니?

민영 (힘없이 방문을 향해) 응? 응...

모친(e) 민영이 자고 있는 거야?

민영 응, 자고 있대두.

문 밖에서 뒤돌아 걸어가는 모친의 발자국소리 들려온다.

민영, 씹쓸한 듯 핸드폰을 바라본다.

s#32. EFL(오후)

외국 손님이 안으로 들어온다.

안에는 민영이 이미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영, 다가오는 손님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한다.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예전의 밝은 미소는 아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민영,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를 대접한다.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찾는다.

구석, 자신의 책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지은

한심한 듯 지은을 바라보는 민영, 한숨을 쉬고는 지은에게 걸어간다.

민영 언니, 지금 뭐해? 일 안할 거야?

지은 (핸드폰을 보며 혼잣말) 회의 들어간다는 놈이, 회의를 한강에서 하시나 보지? 이젠 일이고 뭐고, 일보다 그년이 더 중요하단 말이지?

지은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

민영 (화났다.) 언니!

깜짝 놀라는 지은, 핸드폰을 닫아버리곤 민영을 바라본다.
지은을 노려보는 민영

s#33. 핸드폰 매장(저녁)

핸드폰 매장의 외관
걸어오는 민영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s#34. 차 안(밤)

[인서트]
모텔의 외관

모텔과 약간 떨어진 곳에 세워둔 민영의 차 안
민영과 지은이 차에 앉아 모텔을 바라보고 있다.
푹어져라 모텔을 주시하는 지은, 민영은 귀찮고 짜증까지 난다.

민영 언니, 꼭 나까지 여기 올 필요가 있어?
 내가 차 빌려 줄 테니까...
지은 (말 자르며) 가만 좀 있어봐, 저기 들어간다.

[cut to]
모텔 앞, 지은의 남편이 의문여와 어깨동무를 한 채로 모텔로 걸어 들어간다.

다시 차 안, 지은이 민영을 껴안으며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린다.

지은 나쁜 자식...

민영, 답답하지만 참으며 지은을 안고는 그녀의 등을 두드린다.

s#35. BAR(밤)

고급 웨스턴 바, 어둡지만 분위기 있고 따뜻한 분위기다.
바텐 앞에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영성

앞에는 검은 정장의 바텐더가 서 있다.
영성에게로 천천히 걸어오는 은영, 영성의 옆 자리에 앉는다.
영성이 은영을 힐끗 보고는 말없이 미소 짓는다.

바텐더 (은영에게)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은영 (바텐더에게) 저도 같은 거 한 잔 주세요.
(영성에게) 많이 마셨어?
영성 (나지막이) 아니.
은영 우리는 왜 항상 밤에만 만날까?
영성 응?

바텐더가 은영의 앞에 술을 놓는다. 술을 들이키는 은영

은영 그냥 앙탈이야.

영성에게 슬쩍 미소 짓고는 다시 술잔에 입을 대는 은영
은영의 말이 맘에 걸리는 영성, 무언가 생각에 잠긴다.

영성 놀이동산이라도 갈까? 주말에...
은영 (웃으며) 됐어. 그냥 앙탈이래두.
영성 아냐, 이번 주말에 가자.

영성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은영, 미소로 화답하는 영성

s#36. 민영의 방(밤)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실행중인 핸드폰 액정화면
민영의 방, 민영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으로 영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민영, 무언가가 미심쩍다.
고개를 가웃하며 다시 핸드폰을 바라본다.
이때 들리는 문밖의 노크소리

(e) 푹푹
민영 엄마, 왜?
모친(e) 민영아, 뭐하니?

같은 질문을 하는 모친이 귀찮은 민영, 땀을 흘리다 입을 연다.

민영 자.
모친(e) 민영아, 자니?
민영 그래, 지금 잔대두.

뒤돌아 가는 모친의 걸음소리
한숨 쉬고는 다시 핸드폰을 보는 민영, 미심쩍어 고개를 갸웃한다.

s#37. 모텔 안(밤)

모텔 안, 침대 위에 영성과 은영이 알몸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다.
이리저리 강렬하게 정사를 나누는 두 사람

s#38. EFL(오후)

민영이 책상에 앉아 핸드폰으로 영성의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몰입하여 핸드폰을 응시하는 민영
뭔가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때, 민영의 책상을 누군가가 두드린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민영
앞에는 일본 여인이 활짝 웃으며 민영을 바라보며 서 있다.
민영, 얼른 핸드폰을 닫고는 미소 지어 보인다.

s#39. 고기 집(밤)

작고 허름한 고기 집, 민영이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다.
민영에게 다가오는 정장 차림의 남자
민영, 인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진 않는다.
보란 듯 술을 따라 마신다.

민영 (보지도 않고 술을 마시며) 왔어?

민영의 앞자리에 앉는 남자, 영성이다.

영성 잘 지냈어?
민영 (피식 웃는다. 여전히 얼굴을 보지 않는다.) 오랜만이네.
영성 여자애가 왜 이런 데서 혼자 술을 마셔?

민영 왜? 없어 보여?
영성 (계산대를 보며) 여기 잔 하나 주세요.

잔을 가지고 오는 아줌마, 민영이 영성에게 술을 따라준다.

민영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영성 (술을 마시며) 그냥.
민영 그냥 뭐?
영성 알잖아.
민영 내가 뭘 아는데?

따지는 듯한 민영의 말이 기분 나쁜 영성, 민영을 노려본다.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고는 마시는 민영
영성도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고는 입에 털어 넣는다.

영성 말했잖아, 여자 있다고, 그 여자랑 지냈지
 그 말 듣고 싶어서 만나자 한 거야?
민영 (어처구니없단 듯 웃는다.) 오~ 그래?

비꼬는 듯한 민영의 말투에 기분이 상한 영성, 표정이 굳어진다.
말을 참으며 고개를 돌려 술잔을 잡고는 자신의 잔에 따른다.

영성 (술을 마시며) 응, 이번 주말엔 놀이동산도 가기로 했다.
민영 (혼자 웃기 시작한다.) 놀이동산? 하하하
 오빠 그런 데도 다녔어? 그 여자가 거기 가고 싶대?
영성 (노려본다.)
민영 낮에 가겠네. 바쁘다더니 요즘엔 주말에 회사 쉬나보지?
영성 내가 그런 거까지 말해야 돼?
민영 (쓴 웃음) 난 이제 완전 찬밥 돼버렸네.
 말하기 싫음 하지 마. 주말에 놀이동산 잘 다녀오구.

남은 술을 들이키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민영
당황한 영성이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잡을 수 없다.
혼자 남은 영성, 묘한 기분이 든다. 방금한 민영의 말의 뜻을 생각한다.
썩쓸한 마음에 혼자 술을 따라 마신다.

s#40. 놀이동산(오후)

영성과 은영의 놀이동산 데이트 몽타주

- * 즐거운 모습으로 입구를 들어서는 두 사람
- * 청룡 열차,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치는 영성, 그 옆 괴로운 듯 고개 숙이고 있는 은영, 영성이 흐뭇한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본다.
- *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 각자의 머리엔 장난감 머리띠가 앙증맞게 올려져 있다.
- * 귀신의 집, 비명을 지르는 은영을 옆에서 껴안는 영성의 능글맞은 얼굴
- * 저녁이다.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

s#41. 영성의 오피스텔 앞(저녁)

민영이 밖에서 영성의 집을 바라보며 서 있다.

불 꺼진 영성의 집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액정을 바라본다. (위치추적 한다.)

핸드폰을 닫고는 또 다시 영성의 집을 가만히 바라본다.

s#42. 영성의 집 앞(저녁)

[인서트]

민영의 회상이다.

영성의 집 대문 앞, 영성이 열쇠 문치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문을 열려고 한다.

영성의 뒤에 민영이 영성의 행동을 바라보며 서 있다.

영성 (놀라며) 어? 열쇠가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민영 뭐야? 열쇠가 없어?

영성 아... 차에 비상 키 있거든.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

뛰어가는 영성, 민영이 영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싱긋 웃는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보며 개구진 미소를 짓는다.

대문 앞,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보며 예전 생각을 하는 민영

망설이다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천천히 집어넣는다.

행동을 멈추고는 다시 망설이며 생각에 잠긴다.

결정을 한듯 천천히 열쇠를 돌린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민영의 얼굴

이때, 민영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깜짝 놀라며 행동을 멈추는 민영, 얼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민영 (조심스레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사이) 응? (사이) 안 돼. 언니, 나 지금...

끊어진 전화, 어이없는 듯 핸드폰을 바라보는 민영
힘없이 꽂혀있는 열쇠를 바라보며 한숨 쉰다.

s#43. 영성의 차 안(저녁)

차 안,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과 은영

영성 피곤하지?
은영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끄덕)
영성 배는 안 고파?
은영 쪼금.
영성 그럼 우선 뭐 좀 먹으러 갈까?
은영 영성 씨 집으로 가자. 밥은 가서 해먹음 되잖아.
영성 집으로? 피곤한데 그냥 사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은영 집에 가보고 싶어. (애절하게 바라본다.)
영성 (은영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래, 그러자.

환하게 미소 짓는 은영, 영성이 차를 출발한다.

s#44. 민영의 차 안(저녁)

[인서트]
모텔 외관 모습

민영의 차 안, 민영과 지은이 앉아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지만, 각자 다른 생각,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핸드폰의 위치추적을 보고 있는 민영, 핸드폰을 닫고는 길게 한숨 쉰다.

지은 휴~ 난 내 남자가 저렇게 변강쇠인지 여태 몰랐다.
민영 (듣지 못했다.)...
지은 이제 더는 참지 못할 것 같다.
민영 ...
지은 민영아.

민영 ...
지은 (민영을 보며 또박또박) 민영아.
민영 (정신 차리며) 응?
지은 나 오늘을 끝을 봐야겠다. 뭐가 끝이 나던 오늘은 꼭 끝을 봐야겠다.
그래도 내 곁에 네가 있어줘서 약간은 힘이 되는 거 같다. 고맙다.
내 오늘 저 년놈들을 다 잡아서...
민영 언니,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차는 오늘 언니가 써.
지은 뭐?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날더러 저길 혼자 들어가라는 거야?
민영 언니, 미안.

급하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민영
지은이 민영을 잡으려 하지만 워낙 재빨라 그럴 수 없다.

지은 (창문을 두드리며) 민영아, 민영아.

안에서 본 차 밖의 광경, 민영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간다.

s#45. 영성의 집(밤)

영성의 집 현관, 문이 열리고 영성이 안으로 들어온다.
뒤따라 들어오는 은영

영성 집이 좀 지저분할 텐데.
은영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가버릴 거야.

웃으며 거실로 들어오는 두 사람
은영이 집 안을 둘러본다. 그 사이 영성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간다.

영성 뭐 먹을 게 있나 모르겠네. 내가 요리를 잘 안 해먹어서.

냉장고를 열어 이리저리 살펴보는 영성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은영

은영 진작 와 보자고 조를걸. 영성 씨가 잠자는 방 보고 싶었는데.
(방을 가리키며) 저기야? 당신이 꿈꾸는 곳?
영성 응. 먹을 게 없다. 어찌지?
은영 그럼 영성 씨, 나가서 뭐 좀 사올래? 내가 청소 좀 하고 있을게.

영성 아냐, 됐어. 뭐 시켜 먹자.
은영 (고개를 젓는다.) 아니, 오늘 내가 해 줄래. 그리고 싶어.

진지한 은영의 눈빛

영성, 그녀가 더욱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윽하게 은영을 바라본다.

s#46. 몽타주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 흘러나오며

* 달리는 택시 안, 뒷좌석에 긴장한 표정의 민영이 앉아 있다.

다급한 듯 기사에게 속도를 더 낼 것을 요구한다.

* 영성의 집, 앞치마를 멘 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 모텔 앞, 차에서 내린 지은이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는 모텔을 향해 걸
어간다.

* 마트 안, 이것 저것 음식을 고르고 있는 영성

* 영성의 집 앞, 택시가 멈추고, 택시에서 내린 민영이 영성의 집을 바라본다.

* 영성의 집 안, 은영이 쌀을 씻고는 밥솥을 작동 시킨다.

* 모텔 방 앞, 모텔 주인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는 지은

모텔 주인이 지은에게 열쇠를 건네자 지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결심한 듯
이를 악물고 키를 꽂아 돌리고는 문을 연다.

* 영성의 대문 앞, 복도를 걸어오는 민영, 집 앞에 멈춰 마음을 가다듬는다.
열쇠를 꺼내어 구멍에 꼽고는 손잡이를 돌린다.

-암전-

s#47. 모텔 방 안(밤)

문이 열리는 모양으로 밝아진다.

수건으로 아래를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내는 남자, 지은의 남편이다.

양갈진 지은의 비명

지은(e) 야이 개새끼야!

놀란 표정으로 바뀌며 인상이 일그러지는 지은의 남편

지은이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는다.

놀라며 뛰어 나오는 속옷차림의 내연녀

잡아먹을 듯 내연녀를 노려보는 지은

s#48. 영성의 집(밤)

천천히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의 모습이 보인다.
민영이 불이 꺼진 어두운 집 안을 조심스레 걸어 들어온다.
거실 쪽으로 걸어간다. 불도 꺼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민영, 휘 둘러 보고는 발길을 돌려 방 쪽을 향한다.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고는 마른침을 삼킨다.
긴장하며 문의 손잡이를 천천히 돌린다.

s#49. 영성의 방(밤)

또 다시 어두운 실내, 문이 열리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민영
어두워 안의 광경이 잘 보이지 않는다.
뒤돌아 형광등 스위치를 켜다. 환하게 밝아진 실내
천천히 등을 돌려 고개를 드는데
민영, 무언가를 발견하고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분노한 듯 한곳을 노려본다.
민영의 시선이 멈춘 곳, 영성의 침대이다.
영성이 안대를 낀 채로 굳히 잠을 자고 있다.
침대 앞으로 걸어오는 민영, 표정은 더욱 굳어있다.
영성, 민영의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다.
표정을 보면, 좋은 꿈이라도 꾸는 듯 행복한 미소도 짓고 있다.
민영, 불륜 현장이라도 목격한 양으로 분노에 차있다.
부들거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영성의 안대로 향한다.
안대를 벗기려 손을 가져가다 바로 앞에서 손을 멈춘다.
민영,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다. 침대 위에 올려 진 영성의 오른손
가만히 봉대감긴 손을 바라보는 민영
손을 번쩍 집어 들고는 허겁지겁 봉대를 풀기 시작한다.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영성, 안대를 벗겨내며 몸을 번쩍 일으킨다.
무의식적으로 민영의 몸을 잡아 밀어버린다.
뒤로 벌렁 넘어지는 민영
민영을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영성

영성 미... 민영아... 너...

민영, 벌떡 몸을 일으켜 영성에게 맹수처럼 달려든다.
영성의 손에 덜 풀려진 봉대를 다시 잡아 풀기 시작한다.

영성 너, 왜이래? 지금 뭐하는 거야?

민영의 팔을 잡으며 말리는 영성
민영,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붕대 풀기에만 전념한다.

영성 야! 너 왜이래?

민영을 밀어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는 영성
짜증스런 표정으로 민영을 노려보는데
뒤로 밀린 채로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있는 민영
영성, 민영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민영의 탐구하는 듯한 시선에 웬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온다.
부정하듯, 불안한 듯 허공으로 시선을 돌려 본다.
다시 슬쩍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민영을 바라본다.
여전히 그곳을 탐구하듯 응시하고 있는 민영
피하고 싶다. 다시 시선을 허공으로 향한다.
눈치 보듯 또 슬쩍 민영을 본다. 점점 초조해진다.
할 수 없이 천천히 민영의 시선을 따라 보는 영성
붕대가 풀린 자신의 오른손이다.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손을 계속 들여다본다.
아무런 상처도 없이 깨끗한 손
민영이 다가와 영성의 눈높이로 손을 들어올린다.
더욱 당황하는 영성, 겁에 질린 얼굴로 민영을 올려다본다.
독기에 가득한 민영의 표정
폐잔병처럼, 믿기지 않는 듯 다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s#50. 영성의 집 거실(밤)

쇼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보는 영성
아직도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았다. 복잡한 듯 머리를 헝클인다.
걸어오는 민영, 영성의 앞 테이블에 냉수를 짝뚱 내려놓는다.

민영 마셔.
영성 어떻게 들어왔어?
민영 그게 중요해?
영성 어떻게 들어왔냐고!

민영 ...
영성 빨리 나가.
민영 질투가 나서 왔어.
그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여자 생겼다가에,
아무 말 한 마디 없다가 갑자기 여자 생겼다가에.
너무너무 질투가 나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어.
영성 (물 컵을 집어 던지며) 빨리 나가!
민영 그런데 내가 부끄럽다. 얼마나 잘난 여잔지 궁금했는데.
얼마나 잘난 여자 길래, 날 차버리고 갔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지금까지 질투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있지도 않은 여자, 살아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질투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영성(e) (큰소리) 나가!!

영성의 고향에 놀라며 바라보는 민영

s#51. 영성의 방(아침)

1짚과 같은 분위기
햇살이 창을 환하게 비춘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영성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로 심각한 생각에 빠져 있다.
자신의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자세히 바라본다.
손을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쉰다.

s#52. 호텔 직원 식당(오후)

점심시간,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지은과 민영
두 사람 모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시선도 마주치지 않는다.
의욕 없이 깨작거리다 동시에 수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서로를 보며 크게 한숨 내쉰다.

s#53. EFL(오후)

각자의 책상에 힘없이 앉아있는 민영과 지은
넋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있다.
무엇이 떠올랐는지 각자의 컴퓨터에 몸을 바짝 붙이고는 검색을 시작한다.

화면 분할

지은의 모니터화면, 한 자씩 쳐지는 글자 '무료 법률 상담'

민영의 모니터화면, 한 자씩 쳐지는 글자 '무료 정신 상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의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두 사람

s#54. BAR(밤)

35썸의 빠이다.

바텐 앞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영성, 벌써 많이 취한 듯 보인다.

영성의 앞으로 다가오는 바텐더, 35썸의 바텐더이다.

영성의 앞에 놓인 컵들을 정리하는 바텐더

영성이 바텐더를 가만히 바라본다.

영성 당신 나 알지.

바텐더 (웃으며) 그럼요. 자주 오시잖아요.

영성 그럼 나랑 같이 오던 여자도 알겠네.

바텐더 (당황) 네? 아뇨, 항상 혼자 오셨는데...

영성 (생각하다가) 항상?

바텐더 네.

영성 한 번도 그 여자를 본 적 없단 말이지?

바텐더 네.

영성, 바텐더를 향해 가라는 듯 손을 휘휘 져는다.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바텐더

괴로운 듯 술을 벌컥이는 영성

s#55. 병원(오후)

병원 상담실, 의사와 마주앉아 있는 민영

의사 환자를 직접 데려 오지 그러셨어요.

민영 그게, 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직접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민영

s#56. 길가(저녁)

도로변 길가, 사람들 사이를 힘없이 걷고 있는 민영
주위,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소리 등, 여러 잡음이 들린다.
순간 조용해지며 의사의 목소리 들려온다.

의사(e) 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죠.
사람마다 다르고, 자란 환경마다 다르고, 잠자는 습관마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분은 좀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죠.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이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은 흔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일도 생길 수 있
고요.
무언가를 지독하게 갈망하거나, 지독하게 부정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
질 수 없다고 인정해 버리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자아가 스스로 그것을 이상 속에서 만들어 버리죠.
당연히 그 이상이 현실보다 낮기에 이상을 더 믿고 싶은 욕망에 그것
이 반복 되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의사의 말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민영
다시 들려오는 지나가는 차들의 여러 소음들

s#57. 한강(늦은 저녁)

12썸과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
은영이 앉아 있던 벤치에 은영은 없고 벤치만 외롭게 놓여 있다.
벤치 위로 자동차의 라이트 비춰지고, 곧이어 영성의 자동차가 다가온다.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리는 영성
벤치로 걸어가 예전 은영이 앉아 있던 곳을 가만히 바라본다.
한참을 바라보다 벤치에 앉아 허망하게 한강물을 바라본다.
쓸쓸해 보이는 영성의 뒷모습

s#58. 영성의 집 앞(밤)

영성의 집 앞,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 앉아 있는 민영
영성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차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민영

계단을 향해 걸어오는 영성, 표정이 좋지 않다.
민영을 힐끗 보지만 모른 채하고 그대로 걸어간다.
뒤에서 영성의 어깨를 잡아채는 민영

민영 오빠.
영성 (팔을 뿌리치며) 그냥 가.
민영 얘기 좀 해.
영성 나 할 얘기 없어.
민영 정말 왜 이래?
영성 우리 헤어졌어.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넌 자존심도 없니?

영성의 말에 화도 나고 답답한 민영, 하지만 참아낸다.

영성 그냥 가.
민영 오빠가 잘못된 거 아냐,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행동을 잘못된 거고, 오빠를 싫증나게 만든 거야.
 그런데도 오빠는 정말 바람 안 피우려고 노력한 거고.
 다 내가 잘못된 거야.
영성 제발 그냥 가!

민영을 밀어 제치는 영성, 민영이 바닥에 넘어진다.
영성, 민영이 넘어지자 당황한다.
쓰러진 채로 울먹이는 민영

민영 오빠나 제발 그만 해. 꿈은 꿈일 뿐이야. 현실이 아니라고
 오빠는 그냥 꿈을 몇 번 꾀 것뿐이고
 그 여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여자가 아니야.
 오빠가 잘못된 것도 없고, 미안해 할 것도 없어.
 그냥 예전처럼 다시 오빠로 돌아오면 돼.
 꿈은 꿈일 뿐이라고...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고, 이뤄질 수도 없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서럽게 울먹이는 민영, 민영의 말에 만감이 교차하는 영성

-암전-

s#59. 영성의 방(밤)

문이 열리며 열리는 모양으로 서서히 밝아진다.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 비교적 차분하다.
차분히 침대에 걸터앉는다. 가만히 허공만 바라본다.
고개를 돌려 침대 머리맡을 본다.
작은 약통이 보인다. 손을 뻗어 약통을 집는다.
약통을 바라본다. 수면제이다.
약통을 내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쉰다.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약통을 집어 던진다.
벽에 맞고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하얀 약들
또 다시 가만히 허공만 바라본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후려친다.
잠시 후 또 다시 머리를 후려친다. 연속해서 후려친다.
절규하듯 크게 소리친다.

영성 으악~~

s#60. 호텔 직원계단(오후)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 호텔 직원들
걸어 들어오는 민영, 직원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목례한다.
구석으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기에 귀를 댄다.

(f)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걱정스런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민영
생각하다 다른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인터컷]

영성의 회사 사무실
사무를 보는 여직원, 전화가 울리자 전화를 받는다.

여직원(통화)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 휴가 내셨어요. 그런 건 저도 자세히 모르고요.

다시 호텔 계단, 전화를 끊는 걱정스런 표정의 민영
깊은 한숨을 내쉰다.

노래(e)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s#61. 버스 안(저녁)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흘러나오며
버스 안에서 본 지방 국도의 풍경들
버스 안, 인상 좋아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운전
을 하고 있다.
기사 아저씨의 머리맡에 커다란 림필러가 놓여있다.
림필러로 보이는 뒷자리 승객들의 모습
꾸벅 꾸벅 졸고 있는 할아버지
그 뒤에 캔 콜라를 마시는 시골 꼬마아이와 그의 엄마
꼬마 아이의 입 주위로 콜라가 넘쳐 흘러내린다.
아이를 노려보던 엄마가 아이의 손을 거세게 후려친다.
울음을 터뜨리는 꼬마 아이
그 뒷좌석, 책을 읽고 있는 두터운 안경의 고시생이 아이와 엄마를 흘려본다.
그 뒤에는 할머니가 졸고 있고, 여러 승객들의 모습이 쭉 보인다.
구석 자리, 캐주얼 차림의 영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s#62. 생맥주 전문점(밤)

구석 테이블, 심각한 표정의 민영과 지은이 마주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다.
서로 아무 대화도 없이,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 심각하게 술만 마신다.

s#63. 절(밤)

깊은 산 속의 작은 절
영성이 마당에 스님과 마주 서 있다.

영성 죄송합니다. 산장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합장하며 미소 지어 보이는 스님

s#64. 민영의 집 현관(밤)

민영의 모친이 현관문을 연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민영, 술이 많이 취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민영을 부축하며 걱정스레 바라보는 모친

모친 술은 또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
민영 (모친의 손을 뿌리친다.)...
모친 너 요즘 왜 이러니? 그 남자 때문에 그러니?
민영 (노려본다.)
모친 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민영 (노려본다.)
모친 그 놈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냐고?
민영 (모친을 뿌리치고 걸어간다.)
모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이러는 건 니가 잘못된 거야.
민영 (뒤 돌아 노려보며) 뭘 그만해? 내가 잘못 된 게 뭔데?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 그 남자를 못 잊는 거?
 뭐가 잘못 된 건데? 난 사랑하면 안 돼?
 나 같은 애는 남자 좋아할 수도 없는 거야?
모친 민영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니가 지금 하는 건 사랑이 아냐.
민영 됐어.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냉정하게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민영

혼자 남은 모친, 딸의 행동에 화도 나지만 걱정이 더 하다.

어찌지 못하고 걱정스레 딸의 방문만 바라본다.

s#65. 절 외곽(이른 아침)

채 날이 밝아지지 않은 이른 아침

안개로 자욱하게 덮여진, 우거진 숲이 경이로운 느낌의 산세

돌로 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영성

먼발치의 산세를 보고 있다.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영성에게 다가오는 스님

영성이 급하게 담배를 꺼버린다.

스님, 너그러운 표정으로 영성을 바라보며 합장한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스님을 따라 합장하는 영성

스님 일찍 나오셨습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영성 네.
스님 들어가 식사 좀 하시지요. 찬은 별거 없지만
영성 괜찮습니다. 원래 아침은 잘 안 먹습니다.
 산세가 좋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채 밝지 않아 더 좋아 보이는 거 같습니다.
스님 뭐든 그렇지요. 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덜 보이는 것이...
 절제의 미라고 해야 하나? 뭐 신비감 같은 것이 있지요.
영성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스님 (손으로 벤치를 가리키며) 앉으세요.
 (영성의 옆에 앉는다.)
영성 (따라 앉는다.)
스님 (산을 바라보며) 무슨 걱정이 있어 오셨습니까?
 가끔 도시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평일에 혼자 오시는 분은...
영성 그냥... 생각할 일도 좀 있고 해서.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성, 온화한 표정으로 산세만 바라보는 스님
영성, 스님의 편안한 표정에 경계가 풀린다.
고민을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영성 (스님과 같은 자세로 앞을 바라보며)
 사실은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틀어 박혀 생각도 좀 하다보면 나올 거 같아서...

스님의 얼굴을 보는 영성,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는 스님
영성,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스님을 따라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스님 사람은 세 가지로 기억을 한답니다.
 몸으로,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몸이 떠나고 머리가 기억을 지운다 해도 마음이 하는 기억은 좀 채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몸과 머리의 기억은 지운 듯 보이십니다.
 마음속의 기억,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지만 덮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또 다른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워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면 그것이 곧 지
워지는 것이 아닐 런지요.

온화한 미소로 차분하게 말하는 스님
영성이 스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폴리지 않던 자신의 마음을 읽은 스님이 신기하고 고맙다.
밝은 미소로 스님에게 보답한다.
스님도 영성을 본다. 서로 밝게 미소 지어 보인다.

s#66. EFL(오후)

불만 가득한 얼굴의 일본 손님, 지은이 손님에게 서툰 일본어로 무언가를 설명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일본 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으로 들어간다.
안절부절 하는 지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는다.

지은 (혼잣말) 이 기집애, 어딜 간 거야?

이때, 컴퓨터를 만지고 있던 외국손님이 지은을 부른다.
당황하며 손님에게 다가가는 지은

노래(e)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s#67. 버스 안(오후)

61번의 버스 기사가 여전히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따라 부르며 운전을 한다.
룸밀러를 통해 뒤를 슬쩍 보는 버스 기사
룸밀러에 비친 구석 자리, 민영이 핸드폰의 액정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핸드폰을 닫고는 생각에 잠긴다.

지은목소리 내가 갈게. 오빠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냐.
 오빠가 다가오지 못하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빠.

민영의 표정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s#68. 절 입구(오후)

산길을 걸어 오르고 있는 민영
힘든지 걸음을 멈추고는 숨을 고른다.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본다. 먼발치에 보이는 절의 모습

s#69. 절(오후)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스님
스님의 옆에 영성도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하고 있다.
근엄한 표정의 부처상
눈을 감고 부처 앞에서 결심을 다잡는 영성

[cut to]

마당으로 다른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오는 민영
스님이 기도하는 영성을 손으로 가리킨다.
영성의 뒷모습을 보는 민영, 스님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다.
함장하고는 돌아 걸어가는 스님
기도하는 영성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서 있는 민영

s#70. 절 외곽(오후)

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영성과 민영
아침에 스님과 대화하던 그 자세로 이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는 두 사람
아침, 스님의 미소를 닮아 있는 영성
편안한 미소를 짓는 영성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놓이는 민영
영성의 얼굴을 바라보다 자신도 영성을 따라 미소 지으며 앞을 본다.
마음으로 대화하는 두 사람, 힐끗 웃기 시작한다.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본다. 활짝 웃는다.

s#71. 버스 안(저녁)

시골 길을 달리는 버스 안
밖의 경치를 구경하는 행복한 표정의 영성과 민영, 두 손을 꼭 잡고 있다.

s#72. 영성의 집(밤)

가만히 침대에 걸터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영성
고개를 돌려 책상 위를 바라본다. 책상 위엔 수면제 한 통이 놓여있다.
어느새 책상 앞에 와 있는 영성이 수면제를 손으로 잡는다.
가만히 바라보다 허탈한 듯 미소 짓는다.
걸어가 휴지통에 넣어버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s#73. 영성의 회사 사무실(아침)

출근 시간이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몇 명이 무리를 지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에게로 다가오는 영성

영성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 어? 휴가 갔다더니 벌써 왔네?
영성 (활짝 웃으며) 응.

영성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핸드폰, 동료에게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고는 뒤돌아
전화를 받는다.

영성(통화) 응, (사이) 오늘? 그래, 그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미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머님께 잘못 한 게 있잖아.
 (농담) 매라도 때리시면 맞아야지.

s#74. 영성의 차 안(저녁)

조수석에 놓여 있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
영성이 과일 바구니를 가만히 바라본다.
뒤에서 자동차의 경적소리 들린다. 룸미러를 보는 영성
시선을 돌려 앞을 보면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져 있다.
오른손을 들어 뒷 차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차를 출발하는 영성

s#75. 민영의 집(저녁)

주방,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민영과 그의 언니
언니는 뒷모습만 보일뿐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민영 언니, 태우지 말고 잘 구워, 그 사람 탄 거 안 먹는단 말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언니의 뒷모습
싱글벙글 들떠서 요란을 떨며 움직이는 민영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다.
다가오는 민영의 모친, 식탁에 차린 음식을 보고 놀란다.
진수성찬, 식탁을 가득채운 음식들
모친, 민영을 보며 걱정스레 한숨 쉰다.
이때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민영 왔나보다. (앞치마를 벗는다.)
 (모친에게) 엄마, 알지? 잘 좀 부탁해. (윙크)

현관을 향해 달려가는 민영
체념한 듯한 모친,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다.

민영(e) 오빠 왔어? 빨리 왔네? 아직 준비 덜 됐는데...

영성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민영
마지못해 끌려온 듯 앞 찌과는 다른 굳은 표정의 영성

민영 엄만 전에 봤고, 우리 언니는 못 봤지?
 (뒤돌아 서 있는 언니를 향해) 언니, 인사해. 울 오빠.

그대로 등진채로 행동을 멈추고 있는 언니

민영(e) 울 언니 이쁘다. 나만큼은 아니지만... 언니~

불편한 듯 서 있는 영성이 민영의 부추김에 언니를 바라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언니, 바로 은영이다.
지긋이 영성을 바라보는 은영,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눈빛교환

민영(e) 이쁘지? 응? 오빠, 울 언니가 이쁜, 내가 이쁜?

더욱 굳어지는 영성의 얼굴

민영(e) 응? 자기야, 내가 이쁜, 언니가 이쁜?

-암전-

s#76. 민영의 집(저녁)

밥아 오며 주방,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네 사람
식탁 위, 거의 잔치 상 수준의 찬들이 놓여 있다.
찬들이 한쪽으로 하나둘씩 몰려 진다.
보면, 민영이 영성의 앞으로 찬들을 밀어 놓고 있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성과 민영의 모친
모친의 표정은 걱정을 넘어서 체념한 듯 보인다.
은영은 고개를 숙인채로 쥐죽은 듯 가만히 밥만 먹고 있다.
민영 혼자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
모친과 영성은 불편하며 어색한 분위기이다.

민영 (찬을 집어 영성의 밥 위에 올리며) 어서 먹어, 자기 불편해서 그래?
 (모친의 눈치를 보며) 울 엄마 눈치 볼 거 없어
 울 엄마 생각보다 착해, 그때 일도 다 이해한댔어.
 (모친을 보며) 그치 엄마?

포기한 듯 눈을 질근 감는다.
분위기를 건디기 힘든 영성, 고개를 숙인다.

민영 (은영을 보며) 언니, 어때? 잘 생겼지?
은영 ...(못 들었다. 다른 생각에 잠긴 듯하다.)
민영 언니!
은영 응?
민영 잘생겼냐고요?
은영 (힘없이) 응, 잘생겼어.
민영 (영성을 보며 미소 지으며) 우리 언니가 숫기가 없어 그래.

영성, 여전히 굳은 표정이다. 건디기 힘든 듯 점점 표정이 더욱 굳어져 간다.

민영 (모친에게)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 할 거야.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장남이라 집에서 많이 서두르는 거 같아.
 나한테 부담 안 주려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고, (영성을 바라보며) 그렇지?
영성 ...

민영 응? 오빠, 어서 말해 봐. 그렇지? 얼른 결혼 하고 싶지?

영성, 가슴이 답답하다. 이 상황을 피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은영을 바라본다. 고개를 숙이며 영성의 시선을 피하는 은영
모친을 바라본다. 모친역시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힘조차 부족해 보인다.
민영만 들떠있고 즐겁다. 세 사람은 이 자리가 견디기 힘들다.
스토커처럼 또 다시 영성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민영

민영 응? 오빠, 어서 올 엄마한테 나랑 결혼하겠다고 말해.
결혼 허락해 달라고 말하라고.

더 이상 참기 힘든 영성, 눈을 감고 이를 악문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은영과 모친을 원망하듯 바라본다.
은영과 모친,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사람에게 화를 내는 듯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친다.
은영과 모친을 노려보는 영성

영성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민영 오... 오빠, 왜 그래? 지금 뭐... 뭐 하는 거야?
영성 (민영을 노려보다 현관을 향해 걸어 나간다.)
민영 오빠, 오빠.

민영, 당황하며 모친과 은영을 바라본다.
고개 숙인 두 사람과,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다.

민영 엄마... 언니...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생각에 잠기는 민영, 정신을 차리려 고개를 흔들어 본다.
자리에서 일어나 영성의 뒤를 따라 나간다.
모친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모든 행동을 멈춘 채 가만히 앉아만 있는 은영의 침울한 얼굴

s#77. 엘리베이터 앞(저녁)

불이 켜져 있는 아래로 향하는 버튼
그 불 켜진 버튼을 또 다시 연속적이고도 거칠게 누르는 손가락
층수를 나타내는 작은 모니터가 화살표 위를 향하며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영성이 또 다시 버튼을 신경질 적으로 누른다.
참을 수 없는 분위기에서 얼른 빠져 나가고 싶은 영성
뒤에서 달려오는 민영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민영이 영성에게 채 다가오기 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안으로 얼른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는 영성
민영이 닫히는 문을 손으로 막는다.

민영 오빠, 왜 그래? 또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다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볼 거야?

영성, 짜증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참아내고는 민영의 팔
을 밖으로 빼 밀어 버린다. 버튼을 눌러 문을 닫는다.
뒤로 밀려나 영성을 바라보는 민영, 그의 표정에 더 이상 잡을 수 없음을 알아
챈다. 그대로 닫히는 문을 바라만 본다.

민영 (애절하게) 오빠... 왜 그래...

그대로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영

s#78. 민영의 집(저녁)

주방,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울고 있는 모친
그 옆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음식을 치우고 있는 은영
민영이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울고 있는 모친의 등을 미안한 듯 감싸 안는다.

민영 엄마, 미안해 오빠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

모친, 고개를 들며 민영을 노려본다.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내쉰다.

모친 (울먹이며) 이것아,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민영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실수 좀 했다고 그만 두라니?
 내가, 지금 전화해서... (핸드폰을 찾는다.)
모친 (고함치듯) 니 형부가 왜 니 오빠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 가버리는 모친
민영, 모친의 말이 이해가가지 않는다. 상황을 파악하려 생각에 잠긴다.

고개를 돌려 은영을 바라본다.

민영 언니, 지금 엄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형... 형부라니? 엄마 지금 오빠 때문에 충격 받아서 그런 거지?
 응? 언니 무슨 말 좀 해봐.

민영의 손을 잡으며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는 민영

은영 민영아...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민영, 그녀의 눈빛을 부정하듯 피한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를 쓴다.
은영이 혼란스러워하는 민영의 어깨를 잡는다.
민영, 은영의 손을 빼버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친다.

민영 무... 무슨 말이야? (헛웃음) 호호호,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장난 하는 거지? 언니랑, 엄마랑... 지금 장난하는 거지?

뒤를 돌아 걸어간다. 혼자 부정하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거실로 다가온 민영, 쇼파에 쓰러지듯 힘없이 앉는다.
이런저런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구석 한 곳에서 시선이 멈춘다.
놀란 눈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떨리는 민영의 손이 액자를 붙잡는다.
보면, 은영과 영성의 결혼사진이다.
액자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는 민영, 영성과 은영의 밝게 웃고 있는 웨딩사진
액자를 들고 있는 민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액자를 떨어뜨리고 만다. 쟁그랑 깨어지는 결혼사진
놀란 얼굴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민영
민영의 시선으로 보여 지는 화면, 아래위 들썩이며 흔들린다.
놀라며 시선을 내려 자신의 발을 본다.
뒷걸음질 하는 자신의 발이 절뚝이고 있다.
믿기지 않는 듯 유심히 자신을 발을 바라본다.

s#79. bar(밤)

절망과 분노로 가득한 영성의 얼굴

혼자 바텐에 앉아 있다.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깊숙이 빨아들인다.
앞에 놓인 술병을 잔에 따르는데 빈 술병
보란 듯 병을 위로 들어 흔든다.
술병을 들고 다가오는 웨이터, 영성이 빼앗듯 술병을 낚아챈다.
뚜껑을 따고는 잔에 가득 따라 마신다.

s#80. 호텔 사무실(낮)

15층의 사무실, 같은 상황이다.
팩스가 소리를 내며 용지를 뱉어낸다.
민영의 얼굴이 보인다. 별 다른 감정이 없어 보인다.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넓게 보면 15층 여직원의 복장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민영
옆자리엔 민영과 같은 복장의 여직원이 헤드셋을 통해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
다.
민영의 앞에 놓인 버저(buzzer)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
멍하니 버저를 바라본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옆자리 여직원, 민영의 버저를 바라본다. 짜증스런 얼굴로 민영을 노려본다.
서둘러 전화를 끊고는 엔터를 눌러 전화를 받는다.

여직원 감사합니다. 로얄호텔입니다.
 이에프엘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는 헤드셋을 신경질적으로 벗어버리는 여직원
민영을 노려본다. 여전히 멍하니 앉아있는 민영

여직원 (민영에게) 민영 씨... (화내려다 참는다.) 휴유...
 (팩스를 가리키며) 이에프엘에 온 거래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는 여직원

여직원 (혼잣말) 뭐하자는 거야?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오지 말든지.

짜증을 내며 민영을 스쳐 지나가는 여직원
민영, 아직 자신의 현실에 적응이 되지 않은 듯하다.
길게 늘어져있는 팩스 용지를 바라본다.
생각나진 않지만 그저 예전부터 그랬던 몸의 반응으로 앞에 놓인 전화기의 수

화기를 든다. 번호를 누른다.

- (f)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에프엘 최윤희입니다.
민영 ...
(f)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영(통화) 콜팁의 이민영입니다. 팩스 온 게 있는데...
(f)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는 민영, 용지를 뜯어내어 멍하니 바라본다.

또 다시 멍하니 생각에 잠긴다. 마치 자신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듯하다.

s#81. EFL 앞(오후)

18씬의 다른 시선

18씬의 여직원과 같은 모양새의 민영이 서 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는 EFL 여직원1,2

여직원1이 빠른 걸음으로 민영에게 다가온다.

무표정의 민영이 여직원1에게 팩스 용지를 내민다.

그대로 뒤돌아 걸어가는 민영,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다.

뒤에서 민영을 바라보는 여직원1, 여직원2가 그의 곁으로 다가온다.

여직원1 (민영의 뒤를 향해) 감사합니다.

민영, 그대로 대답 없이 걸어간다.

여직원2 재 좀 이상하지 않냐? 저 다리 보다 정신에 더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왜 그런 거 있잖아. 자격지심 같은 걸로 툭툭 뭉친, 정신병자.

여직원1 췌! 듣겠다.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는다.)

걸어가는 민영에게 그들의 말소리가 그대로 들려온다.

[플래쉬백]

18씬의 화면, 여직원의 뒤를 바라보며 놀리듯 웃는 민영과 지은

복도, 민영의 뒷모습을 보며 키득거리는 여직원1,2

민영, 부정하듯 눈을 감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댄다.
감은 눈에서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린다.
이를 악물며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뒤통이는 민영
뒤에서 키득거리는 여직원1,2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s#82. 민영의 집(저녁)

은영과 모친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침울한 표정의 두 사람, 아무런 대화도 없이 억지로 밥을 먹는다.
은영이 모친의 눈치를 슬쩍 보고는 입을 연다.

은영 민영인?

지금까지 줄곧 눈물을 참았던 모양이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를 악문다.
그런 모친을 안타까운 듯 바라보는 은영
모친의 등을 감싸 안는다. 이내 터져 나오는 울음

모친 저 불쌍한 것을 어쩌면 좋아. 흑흑흑...
은영 밥은 먹어야 하는 거 아냐?
모친 (울먹이며) 문도 틀어 잠그고 저러고 있는데 어떡하니?
 은영아, 저 엘 어떡해? 흑흑흑...

어머니의 울음에 가슴이 아픈 은영, 슬픔에 잠겨 있다가 가슴 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한다.

s#83. BAR(밤)

술을 마시고 있는 영성, 벌써 많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다.
은영이 영성에게 걸어와 옆자리에 앉는다.
영성은 은영이 온 걸 느꼈지만 그대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또 다시 술을 마시는 영성, 은영은 그의 행동을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은영 (얼굴은 보지 않고) 요즘 잠은 어디서 자?
영성 (비꼬는 듯한 웃음) 왜? 내가 걱정돼?
 어디서 자는지가 궁금한 거야?
은영 ...

영성 왜 대답이 없어? 당신 남편이자, 당신 동생의 애인인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니깐 많이 아쉽지?

은영 ... (술쩍 흘려 보다 이내 고개를 돌린다.)

영성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보네. 쳇 (술을 마신다.)

은영 미안해.

영성 (확 노려보며) 뭐가? 뭐가 미안해?

은영 전부, 전부다.

은영을 노려보는 영성, 차분하고 담담한 그녀의 행동이 더 화가 난다.
별척이며 술을 마신다.

은영 우리 헤어져.

영성 (놀라 바라본다.)

은영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영성 너... 너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너 정말 나쁜 애구나. 정말 재수 없다. 말을 해도 꼭...
너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밖에 못해?
너 정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애였어?

은영 미안해.

짧게 한마디 하고는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은영

영성 (크게) 야! 이은영! 야!!

은영의 뒤를 보며 크게 소리치는 영성, 그러나 그녀는 멀리 가버린다.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다시 뒤 돌아 그녀가 간 곳을 바라본다.
다시 술을 가득 따르고는 단숨에 들이킨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친다.
'깡' 소리에 놀란 주위 사람들이 영성을 쳐다본다.
분한 듯 씩씩거리는 영성, 술을 또 다시 별척이며 마신다.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s#84. 길거리(밤)

프롤로그 씬

어두운 밤하늘, 별이라도 내리듯 거세게 소나기가 퍼붓고 있다.

유홍주점이 밀집한 왕복 2차선 도로, 영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 한 복

판에 서 있다.

비틀거리며 도로를 건너는데 지나가는 차가 영성의 앞에 멈춰 서고는 신경질적으로 클락션을 울린다.

운전자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대로 비틀대며 걸어가는 영성, 욕을 해대며 차를 몰아가는 운전자
휘청거리다 흙탕물에 쓰러진다. 한손으로 바닥을 짚고는 몸을 일으킨다.
인도로 올라온 영성, 다시 중심을 잡고 걷다가 벽에 오른손을 짚고는 몸을 의지한다.

고개를 숙이고 구토를 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영성의 토악질
토악질은 끝이 났지만 그대로 몸을 멈춘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그의 머리와 등으로 거세게 떨어지는 빗방울, 이미 옷은 전부 젖어있다.
자세히 보면 그의 어깨가 가볍게 들쭉이는 것이 보인다.
아래로 힘없이 떨어져 있는 그의 오른손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린다.
그의 얼굴을 보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리는 눈물
서럽게 울먹이며 분통한 듯 이미 상처가 난 주먹으로 벽을 힘차게 내려친다.

영성 으악~!!

또 다시 서럽게 울먹이는 영성

영성 (울부짖듯) 왜? 왜? 왜!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영성
먼발치, 우산을 쓰고 이를 지켜보는 은영, 안타까운 듯 안절부절 못한다.
망설이다 영성을 향해 뛰어간다.
영성의 내리치는 주먹을 뒤에서 잡는다. 행동을 멈추는 영성

은영 (울먹이며) 왜 이래? 왜 이래 영성 씨.

영성 니가 나 싫어진 거면 헤어져, 내가 너 싫어졌어도 헤어져.

그런데... 그게 아닌데 우리가 왜 헤어져?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헤어져?

은영 미안해, 미안해 영성 씨

뒤에서 영성을 끌어안는 은영
영성이 뒤돌아 은영을 끌어안는다.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우는 두 사람, 그 위로 거세게 떨어지는 빗방울

s#85. 민영의 방(밤)

침대에 앉아있는 민영, 손에 작은 약병(수면제)을 들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뚜껑을 연다.
손에 약을 조금 쏟아 붓고는 한 알 집어 든다.
망설이듯 천천히 조심스레 자신의 입으로 가져간다.
한 알을 집어 물지만 삼키진 않는다.
또 다시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눈을 감고는 마음을 잡는다.
입안의 약을 손바닥에 뱉어낸다. 약통과 함께 벽을 향해 힘껏 집어 던진다.
벽에 맞고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하얀 약들
이를 악무는 민영,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s#86. 몽타쥬

언니에 대한 그녀의 질투를 나타내는 몽타쥬

- * 결혼식장, 가족사진 촬영 중이다. 활짝 웃고 있는 은영과 영성의 얼굴
그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민영의 슬픈 얼굴
- * 민영의 집 거실, 과일을 먹으며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민영을 제외한 가족들
의 모습, 이런 모습을 구석에 앉아 바라보는 우울한 표정의 민영
- * 민영의 집 앞, 영성의 차 옆이다. 뒷문을 열고는 공주를 모시듯 손으로 안내
하는 영성, 민영이 뒷자리로 들어가 앉는다.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는 영성, 뒷좌석에서 민영이 앞좌석을 부러운 듯 바
라본다. 차 안, 옆자리 은영과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영성
뒷자리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질투에 가득한 민영의 얼굴
- * 40원의 놀이동산,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
민영이 먼발치에서 이 둘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 * 21원의 동대문 쇼핑몰, 환하게 웃으며 옷 구경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뒤에 따라 걷고 있는 민영의 모습
- * 14원의 레스토랑, 포크로 고기를 집어 영성의 입으로 가져가는 은영
고개 숙인 채, 씹쓸하게 앉아 있는 민영
- * 30원의 자동차 극장, 앞자리에서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는 두 사람
뒷자리, 둘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영

-암전-

s#87. 호텔 사무실(저녁)

밝아지며 민영이 일하는 콜 사무실
무표정의 민영이 헤드셋으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민영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컴퓨터의 엔터를 누른다.
이때 민영과의 교대를 위해 다가오는 동료, 민영의 어깨를 가볍게 친다.

동료 수고했어, 퇴근해야지.

헤드셋을 벗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민영

노래(e)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s#88. 버스 안(저녁)

61선과 같은 상황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흘러나오며
버스 안에서 본 지방 국도의 풍경들
버스 안, 인상 좋아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흘러나오는 뽕짝을 따라 부르며 운전
을 하고 있다. 기사 아저씨의 머리맡에 커다란 림밀러가 놓여있다.
림밀러로 보이는 뒷자리 승객들의 모습
꾸벅 꾸벅 졸고 있는 할아버지
그 뒤에 캔 콜라를 마시는 시골 꼬마아이와 그의 엄마
꼬마 아이의 입 주위로 콜라가 넘쳐 흘러내린다.
아이를 노려보던 엄마가 아이의 손을 거세게 후려친다.
울음을 터뜨리는 꼬마 아이
그 뒷좌석, 책을 읽고 있는 두터운 안경의 고시생이 아이와 엄마를 흘려본다.
그 뒤에는 할머니가 졸고 있고, 여러 승객들의 모습이 쪽 보인다.
구석 자리, 캐주얼 차림의 영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그의 오른손엔 하얀 봉대가 감겨져 있다.

s#89. 호텔 입구(저녁)

사복차림의 민영이 호텔 밖으로 걸어 나온다.

입구에 서 있는 도어맨에게 꾸벅 인사한다.
 말없이 고개만 숙여 답례하는 도어맨, 하지만 그리 좋은 표정은 아니다.
 민영, 몸에 배인 자격지심의 행동들, 몸을 웅크린 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도어맨, 절뚝이며 걸어가는 민영의 옆모습을 한동안 바라본다.
 그리곤 관심 없는 듯 옆에 있는 다른 도어맨과 잡담을 나누며 웃는다.
 민영을 향한 웃음이 아니다. 하지만 크게 들리는 웃음소리
 걸어가는 민영의 귀에 도어맨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뒤로 슬쩍 돌리는 민영
 웃으며 대화하는 도어맨과 눈이 마주친다.
 비웃음처럼 느껴지는 도어맨의 눈빛
 민영이 몸서리치며 재빠르게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린다.
 자신을 향한 웃음소리인 줄로만 아는 민영, 더욱 심해지는 자격지심
 그녀의 몸이 더욱 움츠러들고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또 다시 들려오는 도어맨의 웃음소리

s#90. 몽타쥬

민영의 자격지심을 나타내는 몽타쥬

- * 지하철 입구 계단, 절뚝이며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는 민영의 불안한 모습
- * 지하철 역사 안, 많은 인파들 속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민영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웃음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불안한 듯 소심하게 주위를 힐끗거리는 민영
 도착하는 지하철,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는 민영
- * 지하철 안, 구석 자리에 불안한 듯 서 있는 민영
 반대편에 대학생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웃음이 터진다.
 민영이 놀라며 그들 쪽을 살짝 바라본다. 웃다가 민영과 눈이 마주치는 대학생, 놀라며 빠르게 시선을 피해 버리는 민영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점점 불안해지는 민영
 고개를 사방으로 돌리며 사람들을 본다.
 민영을 보며 웃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지하철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잔뜩 주눅이 들어 그들을 경계하는 민영,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을 밀치고 재빠르게 밖으로 내린다.
- * 민영의 집 앞 길가, 뛰는 듯 걷는 듯, 그녀는 뛰고 있지만 절뚝임에 걷는 듯 보인다. 집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민영
 꼬마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지나쳐 가는 민영
 뒤에 꼬마들이 즐거운 듯 크게 웃는다. 또 다시 긴장하며 주눅이드는 민영

점점 커지는 꼬마들의 웃음소리, 잠시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빠르게 진행시킨다.

* 민영의 방,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민영,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헐떡인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무언가를 찾는다.
바닥에 뿌려진 수면제들, 민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약들을 줍는다.
자신의 입으로 약을 계속해서 던져 넣는다.

-암전-

암전 속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

(e) 푹푹푹
모친(e) 민영아, 자니?
민영 (힘없이 방문을 향해) 응? 응...
모친(e) 민영이 자고 있는 거야?
민영 응, 자고 있대두.
열쇠로 문을 따고 여는 소리(e)

s#91. 민영의 방(저녁)

문이 열리는 모양으로 작은 빛이 들어오며 조금씩 밝아진다.
불이 꺼진 민영의 방, 민영의 모친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모친 민영아, 민영이 자니?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천천히 불을 켜는 모친
환해지는 실내, 고개를 돌려 침대를 바라보는 모친
슬픔에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안으로 들어오는 은영
울고 있는 모친을 껴안는다. 침대를 바라본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민영, 행복한 표정으로 밝게 미소를 짓고 있다.
불안한 듯 심각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은영

-암전-

s#92. 병원(오후)

밝아지며 병원 복도, 지나다니는 환자들과 간호사, 의사 등등의 사람들

그 사이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벤치에 혼자 조신하게 앉아 있는 민영
그녀의 옆 상담실 문 앞에 '신경정신과'라는 팻말이 보인다.

[인서트]

상담실 안, 의사(55썸의 의사와 동일)와 마주 앉아 있는 은영과 모친
비교적 담담하고 냉정한 표정의 은영과는 비교되게 금방이라도 울 듯 불안해
보이는 모친의 얼굴

의사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s#93. 민영의 방(저녁)

침대에 앉아 있는 무표정의 민영
의사의 목소리 들려오며 민영의 과거 행적들이 스쳐 지나간다.

의사목소리 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죠.
 사람마다 다르고, 자란 환경마다 다르고, 잠자는 습관마다도 틀릴 수
 있어요.

[플래쉬백]

28썸의 회사 앞, 걸어 나오는 지은의 남편, 얼굴을 자세히 보면 영성이다.
차에서 영성을 보고 있는 민영, 그의 뒤를 감시하며 차를 출발한다.

의사목소리 그런데 이분은 좀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죠.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이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은 흔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일도 생길 수 있
 고요.

침대에 가만히 앉아있는 민영

[플래쉬백]

29썸의 극장 안,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자세히 보면 지은
의 남편과 불륜여가 아닌 영성과 은영이다. 먼발치에서 둘을 보고 있는 민영

의사(e) 무언가를 지독하게 갈망하거나, 지독하게 부정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
 질 수 없다고 인정해 버리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자아가 스스로 그것을 이상 속에서 만들어 버리죠.

당연히 그 이상이 현실보다 낫기에 이상을 더 믿고 싶은 욕망에 그것이 반복 되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플래쉬백]

34썸의 모텔 앞,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 지은의 남편과 불륜여가 아닌 영성과 은영이다. 차에서 둘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영

의사(e) 이정도 상태는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아주 심한 정신적 질환,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무표정의 민영,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의 뚜껑을 열고는 자신의 입에 약을 쏟아 붙는다.

입 안 가득 약을 머금고는 질근질근 씹어 먹는 민영, 미친 사람처럼 흐뭇하게 웃는다.

문 밖에서 모친과 은영의 애절한 목소리 들린다.

은영(e) 문 열어, 민영아, 문 좀 열어 보라고!

모친(e) 민영아... 민영아... 흑흑흑

미소 지으며 약을 씹어 먹는 민영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문을 보면, 못과 나무로 단단하게 막아 놓은 방문

-암전-

s#94. 절 외곽(이른아침)

맑아지며, 65썸과 같은 상황

스님과 나란히 앉아있는 영성, 오른손은 여전히 붓대로 감겨져 있다.

스님 어쩌다 손을...

영성 아, 네...

스님 (산을 바라보며) 무슨 걱정이 있어 오셨습니까?

가끔 도시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평일에 혼자 오시는 분은...

영성 그냥... 생각할 일도 좀 있고 해서...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성, 온화한 표정으로 산세만 바라보는 스님

영성, 스님의 편안한 표정에 경계가 풀린다.
고민을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영성 (스님과 같은 자세로 앞을 바라보며)
사실은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틀어 박혀 생각도 좀 하다보면 나올 거 같아서...

스님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라... 어떤 기억을 말씀하십니까?

영성 사람은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은 하나쯤 있습니다.

스님 기억이라 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야하는 기억과 잊어선 안 되는 기억
다르게 말해 잊고 싶은 기억과 잊고 싶지 않은 기억
자신에게 잊고 싶은 기억은 상대에겐 잊기 싫은 기억이 될 수 있죠.
다르게 말해, 자신에겐 잊어야하는 기억이 상대에겐 잊어선 안 될 기
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성 (당황스럽다. 스님을 노려보며)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스님 보살님은 잊어야하는 기억을 잊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잊어선 안 될 기억을 잊고 싶으십니까?

영성의 얼굴을 노리듯 바라보는 스님의 인자하지만 무서운 표정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영성의 얼굴

s#95. 모텔 방 안(저녁)

자신의 알몸을 이불로 가린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민영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가만히 있다.
먼발치에서 샤워기의 물소리가 약하게 들려온다.
민영,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옆에 놓인 가운으로 몸을 가리고는 천천히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절뚝이며 걸어간다.

(e)샤워기 췌아~

s#96. 모텔 욕실 안

약하게 들리던 샤워기 물소리가 크게 들리며, 수증기로 가득한 욕실 안
아무도 없는 욕조 안 샤워기가 댄 바닥을 향해 뜨거운 물을 쏟아낸다.
욕실 안을 가득 채운 물소리와 겹쳐 약하게 들려오는 흐느낌소리
소리를 따라가 보면, 하얀 모텔 가운을 입은 채로 욕실 구석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울먹이는 영성의 모습

영성 (서럽게) 훌훌... 훌훌...

서럽게 울먹이는 영성, 이때 문이 서서히 열리며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민영
여전히 무표정이다. 울고 있는 영성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영성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몸을 낮추고는 관찰하듯 영성을 바라본다.
영성, 민영을 느꼈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다. 그대로 울먹인다.

영성 (울먹이며)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훌훌...
내가 널 사랑하고, 니가 날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론... 사랑만으론 안 되나봐.
이 세상은 사랑만으론 모든 걸 허락하지 않나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영아, 미안하다 민영아.

민영, 울먹이는 영성을 안아준다.

영성 민영아, 껴껴... 미안해... 민영아, 껴껴...

민영의 어깨에 기대어 아이처럼 울먹이는 영성
가만히 영성을 안고 있는 민영의 얼굴, 무표정이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포
용하는 느낌이다.

s#97. 민영의 집(저녁)

75원의 다른 시선
주방,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은영과 민영
민영은 뒷모습만 보일뿐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은영 민영아, 태우지 말고 잘 구워, 그 사람 탄 거 안 먹는단 말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민영
싱글벉글 들떠서 요란을 떨며 움직이는 은영,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다.
모친이 다가와 음식을 구경하며 환하게 웃는다.
이때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은영 왔나보다. (앞치마를 벗는다.)

(모친에게) 엄마, 알지? 잘 좀 부탁해. (윙크)

현관을 향해 달려가는 은영

은영(e) 오빠 왔어? 빨리 왔네? 아직 준비 덜 됐는데...

영성의 팔짱을 끼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은영

은영 엄만 전에 봤고, 우리 동생은 못 봤지?
(뒤돌아 서 있는 민영을 향해) 민영아, 인사해. 울 오빠.

그대로 등진채로 행동을 멈추고 있는 민영

은영(e) 울 동생 이쁘다? 나만큼은 아니지만... 민영아~

불편한 듯 서 있는 영성이 은영의 부추김에 민영을 바라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민영, 지긋이 영성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눈빛교환

은영(e) 이쁘지? 응? 오빠, 내 동생이 이뻐, 내가 이뻐?

굳은 표정의 영성 얼굴, 이내 가식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운다.

영성 (민영에게 꾸벅 인사하며) 처음 뵙겠습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영성을 따라 꾸벅 인사하는 민영, 영성의 표정을 뚫어져라 본다.
고개를 돌려 민영의 시선을 피해버리는 영성

은영(e) 응? 자기야, 내가 이뻐, 언니가 이뻐?

영성 응?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귓속말로) 네가 더 이뻐.

하하하 웃으며 좋아하는 은영

은영을 보며 같이 웃는 영성, 표정을 숨기며 민영을 슬쩍 본다.
고개를 숙이곤 침통한 듯 있던 민영, 언니를 보곤 애써 미소 지어 보인다.
영성의 얼굴을 슬쩍 본다.
민영과 눈이 마주친 영성, 놀라며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린다.

s#98. 민영의 방(저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민영, 불을 켜고 천천히 걸어온다.
거실에서는 웃고 떠드는 영성과 은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신의 발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절뚝이며 책상 쪽으로 걸어간다. 책상 의자를 빼낸다.
이를 악물고는 의자를 들어 의자의 다리로 자신의 발등을 세게 내려찍는다.
인상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민영, 하지만 이를 물며 비명은 참아낸다.
감은 눈에서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린다.
또 다시 발을 내려찍는다. 발등이 터져 흘러나오는 붉은 피
가슴 속 응어리를 뿜어내듯 점점 더 세게 자신의 발등을 내려찍는다.

s#99. 절 방(저녁)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영성의 얼굴
고개를 저으며 애써 생각을 지우려 한다.
배낭을 꾸리던 중이었던 영성, 서둘러 배낭을 꾸린다.
이때, 또 다시 스님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스님(e) 보살님은 잊어야하는 기억을 잊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잊어선 안 될 기억을 잊고 싶으십니까?

영성, 찻집함과 불쾌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
배낭의 지퍼를 채우려는데 다친 손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짜증을 내며 배낭을 집어 던진다. 고개를 숙이며 크게 한숨을 내쉰다.
머리를 형클이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꺼두었던 전원을 켜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고는 귀에다 대고 음성을 확인한다.

은영(f) (가늘고 애절한) 여보... 민영이가...

s#100. 병실 앞(밤)

병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울고 있던 은영
절에 있던 그대로의 복장을 한 영성이 복도를 급하게 뛰어 온다.
은영의 앞에 멈춰서는 영성,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본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영성 어떻게 된 거야?
은영 여보... 민영이가... 흑흑흑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울먹이는 은영
그녀를 안고 있는 당황한 듯한 영성의 의미심장한 표정

s#101. 병실 안(밤)

침대에 누워있는 민영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다. 얼굴엔 은은한 미소가 지어져있다.

의사 행복해 보입니다. 마치 좋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은 아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소심하게 말을 내
뱉는 의사, 의사는 본분을 망각한 채 희미한 부러움마저 느껴지는 얼굴이다.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대사를 시작하는 목사, 그리고 신도들의 모습

목사 젊고 아름다운 한 명의 어린 양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하느님의 곁
으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의 품에서 태어나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
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순리요 엄연히 해야 할 일
이것은 슬프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눈물 나지만 마땅한 일입니다.
어린 양은 이제야 사탄의 괴롭힘을 벗어나 하느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간 것이며, 이제야 고통을 벗어나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목사와 신도들
뒤편엔 민영의 모친이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감추려 입을 틀어막고 있다.
입구 옆 구석엔 은영과 영성이 서 있다.
또 다시 들려오는 목사의 목소리

목사(e) 우리는 이 어린 양과 빛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는 또 다른 어린 양의
가는 길에 그동안의 고통을 위로하고 새 삶을 축복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민영의 모친, 서럽고 크게 통곡한다.
목사의 대사에 충격을 받은 듯한 영성의 의미심장한 표정
영성에게 부축 받으며 안겨있던 은영도 흐느끼기 시작한다.

은영 아기를 가졌었대, 남자친구 한 번 집에 소개하지 못하던 애가...

입을 가리며 울기 시작하는 은영
동상처럼 굳어있는 영성의 얼굴이 파르르 떨린다.

[인서트]

침대에 누워있는 민영의 얼굴에 디졸브 되며
96원의 모텔 욕실 안, 울먹이는 영성을 끌어안고 있는 민영의 무표정 얼굴

민영 (끌어안은 채로 차분하게) 울지 말아요.
당신이 울면 내가 당신을 보며 웃을 수가 없잖아.

민영, 손으로 영성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자신과 시선을 맞춘다.
영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짓는 민영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민영을 올려다보는 영성

민영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당신이 미안해하면 우리가 한 것이 사랑이 아닌 게 되잖아.

미소 지으며 영성과 눈빛을 교환하는 민영

은영(e) (울먹이며) 여보,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흑흑흑...

병실, 영성이 감고 있던 눈을 뜨고는 은영을 바라본다.
은영의 얼굴에 손을 가져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다.

영성 웃고 있잖아,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민영의 웃고 있는 모습, 의사가 덮고 있던 천으로 민영의 얼굴을 덮는다.
크게 터져 나오는 모친의 울음소리, 기다린 듯 크게 설교를 해대는 목사

목사 기도합시다. 가엾은 어린 양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가는 길을 축복해줍시다.

-끝-

